

다니엘 70이레: 요한 계시록 해석의 실마리!

- 읽을 말씀 고전 1:25-29, 단 9:24-27
- 주요 내용

오늘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신기원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첫 시간으로, 계시록이 해석된 이유와 해석의 실마리인 70이레 예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해석이 완성될 무렵 성령님께서 제목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라고 주시며, “이 설교는 그 진리를 시위하는 것이 될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가져왔는데, 그 다음 구절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는 저의 심금을 울린 구절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 구절에 나오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같은 자를 택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절을 한없이 중요한 계시록 설교의 제목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제목을 통해 저는 왜 성령님이 계시록 해석을 제게 부으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받기에 합당한 자격은 주제파악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띄어(대하 16:9)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연이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27)**”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25절에 나와 있듯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특히, 성경해석에 있어 제 머리카락 분별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

을 주시기를 여러 해 동안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자 지혜와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후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후, 수십 년동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설교를 하고, 131권이 되는 책들도 썼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릴 때와 다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설교하고 목회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에 대해 100% 절망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눈에 띄어,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의 약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연이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29).”**는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시록 해석은 저에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갑자기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원리에 의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 모두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것들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는 동안 평생을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부분들을, 관심을 가진지 30분이나 1시간 안에 완전히 해석되는 것을 상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도 풀리지 않고, 거의 2000년간 축적된 지식을 갖고도 풀리지 않던 난제들이 풀리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 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풀지 못한 계시록이 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께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이나 진리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 진리가 드러나고 공명이

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이 일은 겸손한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말로 계시록을 이해하고 싶으면 교만한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시록 해석을 듣는 것에는 배나 더 겸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계시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백지상태에서 배우고 계시록을 바르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다니엘 70이레: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전편이고 계시록은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70이레 예언(9:24-27)이 중요한데, 이것이 계시록 해석의 실마리와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한수 교수님은 계시록 주해에서 70이레 예언에 대해 “한 이레를 7년 주간으로 계산한다면 70이레는 490년의 기간을 가리키게 된다. 세대주의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고레스가 성전 중건명령을 내린 때부터(BC 457)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70이레(49년), 그 후 다니엘 9:25에 예언한 대로 기름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2이레(434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 후 메시아의 죽음,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지고(단 9:26), 2000년간의 긴 신약시대가 지난 뒤에 마지막 한 이레(7년 대환난)가 임하는 기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70이레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거부하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1) 무슨 근거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가?

이것은 반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70이레 예언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7:25, 12:7)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할 기간입니다. 70이레에 나오는 “**이레의 절반**”(9:27)과 정확히 같은 기간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한 때 두 때 반 때**”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핍박할 기간을 마흔두 달이라고 했습니다(11:2). 정확히 3년 6개월입니다. 이뿐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12:14)와 “**마흔두 달**” 혹은 “**천이 백육십 일**” 이 호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11:2-3, 12:6, 13:5). 그러므로 70이레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무슨 근거로 69이레와 마지막 이레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하나?

이를 ‘간격이론’ 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 반론은 성경의 예언들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격이론은 70이레 예언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23-27절에 보면 “넷째 짐승” 은 로마를 뜻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재림 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입니다. 갑자기 로마제국에서 대환난으로 건너편 것이므로 간격이 존재합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뜻하는 남자가 승천하고 난 후 광야로 도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14)를 양육받습니다. 이 시기를 교회시대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으나, 12장은 대환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논점에 맞게 그 사이의 긴 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 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0이레 예언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도 간격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70이레 예언 자체에 69이레와 마지막 이레에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70이레 예언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고 시작합니다(단 9:24). 이처럼 70이레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69이레와 마지막 이레 사이에는 유대인과 상관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교회시대(이방인의 때)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간격이론은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된 이론이 아닙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배고픈 거지가 밥 한술을 구하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구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